

“도의국사를 종조로 봐야 합리적” 법통관 피력

특강-한암대종사의 종단관

현해 스님(동국대학교 이사장)

한 평생을 수좌로 살았던 한암 스님. 스님은 불교, 유교, 도교 등 동양사상 전반과 역대조사에 대해 두루 통달했다. 스님의 저서 <일발록(一鉢錄)>에는 매우 다양한 자료가 인용되고 있다. 생전에 많은 책을 섭렵했다는 방증이다. 4월 7일 '한암 대종사 수행학림' 네 번째 주제인 '한암대종사의 종단관' 강의를 나선 현해 스님(동국대학교 이사장)은 “한암 스님은 어느 때는 매우 합리적인 면모를 보이고, 또 어느 때는 초합리적인 선사의 면모도 보였던 분”이라며 “스님은 특유의 현실적이고 실용주의적인 생각이 근거해 조계종의 종통에 대한 통찰력도 보여 주었다”고 밝혔다. 다음은 현해 스님의 강의를 요약한 것이다.



동국대학교 이사장 현해 스님은 4월7일 월정사 한암대종사 수행학림에서 “한암 스님의 종통관을 보완·수정해 합리적인 종통관을 세우자”고 밝혔다.

“보우 스님을 종조로 세우는 건 사대주의 발상”

‘도의→보조→각암→졸암→구곡→벽계’로 이어져

됩니다. 그런데 법통이라고 말하면, 이 많은 종파의 법통을 어떻게 다 하나로 모으며 어떻게 따지겠습니까. 열반종은 열반종대로의 종통이 있고, 천태종은 천태종만의 종통이 있는 법입니다. 조계종 역시 종통이라고 해야 바로 쓰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암 스님 이전에는 조계종에 이른바 ‘종통관’이라는 관념도, 어느 쪽이 ‘법통이다’라는 정설도 없었습니다. 다만 1764년 송광사 재영 스님이 자료를 정리해 편찬한 <해동불조원류(海東佛祖源流)>에 종통 계보가 적혀 있어 현재 이를 토대로 조계종의 일반적인 ‘종통설’이 수립돼 있습니다. 현재 조계종의 일반적인 ‘종통설’은 <해동불조원류>를 참고해 석유청공→태고보우→환암훈수→구곡각암→벽계정심→벽송지엄→부용영관→정허휴정→부휴선수(이하생략)로 믿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비해 한암 스님은 도의국사→법일→보조지눌→각암→졸암연연→구곡각암→벽계정심으로 이어지는 종통관을 피력한 바 있습니다. 한암 스님은 <불교> 제70호(1930)에 발표한 ‘해동 초조에 대하여’를 통해 “근래 문학사에 태고보우 국사를 해동초조로 정하는 일이 간혹 나타나니, 이는 스스로 위배됨이 극심하다 하겠다.(중략) 신라의 모든 국사들이 처음 조문에 들어가서 법을 얻어 동(東)

으로 들어오신 것이 오늘날 태고가 초조라는 주장 때문에 허황하게 되었으니, 어찌 애석하지 않겠는가. 또한 연원계통을 정직하게 가릴 것 같으면 오늘날 우리 형제가 태고 연원이 아님을 단언하는 바이다. 왜 그러냐면 구곡각암 선사(조계종 제13대 국사) 각암 존자의 손재자가 필은 분명히 이능화 선생이 저술한 <불교통사>에 기재돼 있는데, 태고국사의 손재자라는 문구는 고래로부터 전해오는 기록이나 또는 비명(碑銘)에도 도무지 없다고 하였은즉 무엇을 근거로 태고를 구곡의 스승으로 했는지 생각 해볼 일이다. 당당한 해동 조계종 제13대 국사의 손재자인 구곡이 다시 일제종의 후손인 석유에게 법을 얻어 온 태고의 손재자가 필 필요가 무엇인가”라고 물었습니다.

목은 이색(李穡)이 찬한 <원종국사탑비>의 문도 명단에 환암훈수가 제일 먼저 기재 돼 있으나, 환암훈수가 태고보우의 법제자라는 확실한 근거는 없습니다. 오히려 <금석총람 하권>에 실린 형통사 보각 국사비에는 환암훈수가 나옹의 법을 이었다고 밝혀져 있습니다. 또 전래의 종통설에는 구곡각암이 환암의 법을 전수했다고 알려져 있으나 방증은 없습니다. 다만 유방선이 지은 <불종만우천봉>이나 고려말 이승인이 지은 <솔우천봉상인유방사>에는 구곡의 제자인 만우를 환암의 계통으로 표하고 있는

■서간문으로 보는 한암 스님의 인간미

21세에 금강산 장안사에서 출가해 23세때 경허선사에게 인가를 받아 깨달음을 얻은 한암 스님. 한암 스님의 제자로는 우리나라 최고의 학승으로 이름을 떨친 탄허 스님이 있다. 탄허 스님은 20세 이후 3년에 걸쳐 한암 스님과 간절한 심정으로 편지를 주고받으며, 마침내 발심해 출가하게 된다. 구도열정과 더불어 스님들의 인간적인 면모 역시 놓칠 수 없는 대목. 제자외의 헤어짐을 아쉬워하는 스승의 모습, 그리움과 진솔함이 그대로 드러난 서간문을 통해 제자의 구도를 간절히 기원하는 스승의 애뜻한 마음도 느낄 수 있다. 우리나라 근대 불교사에 걸출한 족적을 남긴 3대에 걸친 사제지간의 이야기를, 주고받은 서신과 한암 스님 말년기록인 <일생패결(一生破結)>을 통해 살펴본다.

●은사(경허)스님이 제자(한암)와 헤어짐을 아쉬워하며 건넨 글

나는 천성이 인간 세상에 섞여 살기를 좋아하고, 곁하여 피리를 진흙 가운데 끌고 다니기를 좋아하는 사람이다. 다만 스스로 절룩거리며 삼살개 뒷다리 같은 너절한 삶을 44년 간 살아왔는데, 우연히 해인정사에서 한암을 만나게 됐다. 그의 성행은 순직하고 학문은 고명했다. 함께 추운 겨울을 서로 세상 만난 듯 지냈는데 오늘 서로 이별을 하게 되니, (중략) 옛 사람이 말하기를, ‘서로 알고 지내는 사람은 천하에 가득하지만 진실로 내 마음을 아는 사람은 과연 몇이나 되랴.’ 하지 않았던가. 슬프다. 한암이 아니면 내가 누구와 더불어 지음이 되랴! 그래서 시 한 수 지어서 뒷날에 서로 잊지 말자는 부탁을 하노라.(후략)



경허 스님

●한암 스님이 세상을 떠난 스승(경허)을 그리워하며 한탄하는 글

전락(갑진년1904) 통도사에서 지내던 중 마침 뜰이 생겨 병을 치료했지만 고치지 못했다. 그러저저 6년 세월이 흘렀다.(중략) 하지만 당시에는 말세인줄도 불필이 매우 쇠미하여 명인(名僧)

의 인증(印證)을 받기가 매우 어려웠다. 그리고 화상(覺海)계서도 머리를 기르고 유생의 옷을 입고서 감산, 강계 등지를 왔다 갔다 하다가 이 해(1912)에 입적하시니 참으로 탄식할 만한 일이다. 그래서 이 한 토막글을 써서 스스로를 꾸짖고 스스로 맹서하노니 한 소식 분명하기를 기약하노라.

●은사(한암)스님이 제자(탄허)의 첫 편지를 받고 보내온 글을 자세히 읽어보니

만족하게 도에 향하는 정성을 보겠노라. 장년의 호걸스러운 기운이 넘쳐 입을 지음에 좋은 일인지 나쁜 일인지도 모를 때에 능히 장부의 뜻을 세워 위엄을 구하거나 속됨을 버리고 참됨을 향하지 말지니라. 매양 고요함은 시끄러운데서 구하고 참됨은 속됨 속에 찾는다. 구하고 찾는 것이 가히 구하고 찾는 없는데 도달하면 시끄러움이 아니니, 참됨도 참된 것이 아니라, 부르면 쫓아지고 고함지르면 끊어지느니라.(후략)



탄허 스님

우리는 평소에도 종단이 실질적 문제로 안고 있으면서도 공식적으로는 논의를 한 바 없이 혼란한 상태로 남아 있는 현 조계종 종통관(宗統觀)의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 한암 스님의 종통관을 어떠한 이를 근거로 종통관이 안고 있는 문제를 어떻게 바라보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암 스님의 ‘눈 밝은’ 견해를 살펴봄으로써, 이를 근거로 보다 현실적인 종통을 세우는 데 참고가 될 것으로 믿습니다.

일단 왜 법통(法統)을 종통이라고 부르느냐에 대한 이야기부터 해야겠습니다. 조선의 태조 이성계가 혁명을 일으킨 후에 불교를 통합하려 했습니다. 그 전에는 태고보우 국사나 보조지눌 국사가 통일시키려 했으나 통합이 안 됐었지요. 흔히 5교 9산이라고 말하지만 제가 조사한 바로는 그 시기에 약 13개산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각 종파마다 독립된 채로 따로 유지됐으며, 조선시대에도 실질적으로 이 종파는 유지됐습니다. 1950년 이후부터 각 종파가 독립하기 시작해 천태종, 태고종 등으로 갈라졌으며, 현재는 약 60여 개가 될 것으로 추정

아빠다 코스 나를 찾아오는 9살간의 내면여행!

나는 누구인가? 나는 왜 여기 있는가?

자신이야말로 자신이 큰 변화를 가져오기 위해 일생동안 기다려왔던 바로 그 시간입니다. 자신의 소신을 이루십시오.

밝은길 아파타 센터 진정한 빛나는 인생의 새로운 보드라운입니다.

아파타 마스터 김희균

●전통문화의 상담 활용
서울시 중구 경향동 154-1 전화 010-6230-2113 · 021396-2736
http://www.apatacenter.co.kr E-mail: heegyun@apata21.com

한암대종사 수행학림 봉행

조계종의 초대 종정을 역임하시고 ‘승가오칙(僧伽五則)’의 수행법을 널리 퍼신 한암대종사의 선사상과 수행기풍을 재조명하고 한국불교의 바람직한 수행자상을 정립하기 위하여 선방 수좌 스님들의 지도에 따라 ‘승가오칙’에 입각한 수행을 통해 자기 내면의 부처를 바로 볼 수 있는 수행의 장을 마련하였습니다. 특히 수행학림 기간 중에 화엄사상의 증신처인 오대산에서 역대 큰스님들의 유훈을 계승하고 화엄사상의 현대적 의미와 실천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화엄경)의 대강백스님들을 초빙하여 화엄산림을 봉행합니다.



●기 간: 3.17 ~ 4.24. (매주 금 ~ 일) ●장 소: 오대산 월정사, 상원사, 적멸보궁
●참가비: 주당 10만원

■수행학림 전체 일정 (3.17 ~ 4. 23 매주 금·토·일)

날 짜	시 간	내 용	장 소
금	19:00	저녁예불	월 정 사
	20:00	한암대종사 수행 및 선사상 강의	
	04:00	새벽예불 / 영불정진	
	05:00	경행(선나무 숲) / 아침공양 / 운터	
	09:00-15:00	오대 참배(108배 및 참선)	
토	15:00-17:00	화엄산림(화엄경 강의 - 6회) / 약식	동·서·남·북대 월 정 사
	19:00	저녁예불	상 원 사
	20:00	좌선법 강의 및 지도	
	21:00-05:00	철야정진(좌선)	
05:00-06:00	경행(한암·탄허대종사 부도탑)		
일		아침공양	중대사자암 적멸보궁
	09:00-10:30	참법 및 포살	
	11:00	상부일배 / 정근정진	
	12:00	서원 및 회향	
4. 24	09:00	한암문도회 운영위원회	월정사 적광전 월정사 적광전 월정사 대법륜전
	10:40	한암대종사 탄신제	
	11:00	한암대종사 수행일회집 봉정법회	
	12:30	‘한국불교와 한암대종사 선사상’ 학술세미나	

한암대종사 수행일회집 봉정법회

◆일 시: 2006년 4월 24일 10시
◆장 소: 오대산 월정사 적광전

‘漢岩大宗師의 思想과 그 影向’ 학술세미나

◆일 시: 2006년 4월 24일 12:00 ~ 17:00
◆장 소: 오대산 월정사 대법륜전

※ 문의처: 월정사 중무소 0331332-6664, 5
현대불교신문사 0212004-8240

대한불교조계종 제4교구본사 오대성지 월정사 · 현대불교신문사

화엄산림-제4강(23~30품)

지안 스님(은혜사 승가대학원장)

은혜사 승가대학원장 지안 스님은 4월 8일, 월정사 수행학원 기간 중 대법륜전에서 열린 '화엄산림'에서 '화엄 사상은 마음이 만들어낸 모든 것을 진열해 놓은 대형 종합백화점과 같은 잡화(雜華)사상이며 이것이야말로 한국불교가 추구해 온 특색'이라고 강조했다.

<화엄경> 강설 이전에 화엄산림이 열리고 있는 월정사와 <화엄경>의 인연에 대해 잠시 이야기하고 들어가겠습니다. 알고 보면 오대산 월정사에서 화엄법회가 열리는 것은 지극히 자연스럽고 깊은 인연의 이치입니다.

오대산은 전통적으로 문수도량이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문수보살은 보현보살과 함께 화엄삼성(華嚴三聖) 중 한 분이시지요. 그러나 오대산은 화엄도량이라고도 부를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지역적으



월정사 화엄산림에 참가한 사부대중.

이야기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인간의 육신을 갖고 천상에 오르다니, 말이 되냐는 것입니다.

그런데 불교에서는 마음에 불가사의한 힘이 있어 마음이 무엇이든 만들어낸다고 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꿈을 꿀 때, 감각적으로 느끼는 것은 아니지만 꿈속에서 보고 듣고 다 하지요. 의식으로 말하자면 몽중의식(夢中意識)인데 실제 눈으로 직접 보거나 귀로 들을 수 없는 것을 꿈에서 보고 듣는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화엄경>을 설명할 때 '삼매 속에서 설해진 경전이다'라는 말은 '삼매 속에서 시방의 불보살이 등장하고 불가사의하게 부처님이 깨달으신 진리가 삼매 속에서 설해져 나왔다'는 뜻입니다.

'승도솔천공품'은 흔히 5회 심회향법문이 시작되는 품이라고 불립니다. 도솔천왕이 마니장사자 좌를 마련하고 부처님을 영접하고, 이어 24품 '도솔천궁계장품(兜率天宮界長品)'에서는 금강당 보살을 위시한 10량보살들이 계승을 설하며 부처님을 찬탄합니다. 이어지는 25품이 '십회향품(十廻向品)'입니다.

금강장보살이 보살지광삼매에서 한량없는 지혜를 얻고 일어나 10가지 회향을 설하는데, 이 회향은 모두 3곳으로 회향됩니다. 중생회향, 실제회향, 진여회향이 그것입니다. 아래로는 중생에게 향하고 위로는 보리를 구한다는 이야기지요.

<화엄경> 가운데 가장 중요한 품이 몇 개 있습니다. 3회의 십주(十住, 보살이 가져야 할 10가지 마음가짐), 4회의 십행(十行, 보살이 행해야 할 10가지 행위), 5회의 십회향(十廻向, 수행의 공덕을 중생에게 돌리는 보살의 10가지 행위가 그것입니다.

이 십주, 십행, 십회향이 성취되고 나서야 십지법문이 설해집니다. 심회향 전체가 십지로 나아가는

화엄경>에서 10은 만수(滿數)를 상징하는 동시에 십바라밀을 상징합니다. 일반적인 육바라밀에 방편(方便, 願願), 역(力), 지(智) 바라밀을 더해 십바라밀이라고 부릅니다. 바로 이것을 상징한다고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이와 같이 10지 수행은 십바라밀에 배대해 설해졌으며, 또 한 지위가 다른 지위를 모두 포함하고 한 행이 모든 행을 다 갖춘 원만 융통한 보현행을 자세히 보이는 법문입니다. 우리는 하나의 사물을 파악할 때 한 단면에 얽매이지만, 하나 속에는 모두가 들어 있습니다. 십바라밀은 차례대로 십지와 대응되지만 실제로는 각 지마다 십바라밀이 갖춰져 원만 융통한 것임은 말할 필요도 없지요.

<화엄경>은 동적인 수행을 권장하는 경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화엄'이 '꽃으로 장엄한다'는 뜻이듯이, <화엄경>은 '보살이여, 만행화(萬行華)로 깨달음의 길을 꾸며놓으라'는 참 뜻을 갖고 있지요. 부처님 법파라 살아가고 수행길파라 살아가려고 마음 낸 사람이 행함을 통해 일생을 항상 아름답게 꾸미며 살아가라, 이것이 바로 경전이 뜻하는 바라 하겠습니다.

27품은 '십정품(十定品)'입니다. 한 마디로 십지보살수행을 완성한 다음 얻는 깨달음에 직결되는 경계를 보여주는 내용들입니다. 지혜의 근본인 10가지 선정을 말하고 있지요. 불교에서는 계·정·혜를 삼학(三學)이라 부릅니다. 동시에 수행의 순서를 나타내는 것이기도 하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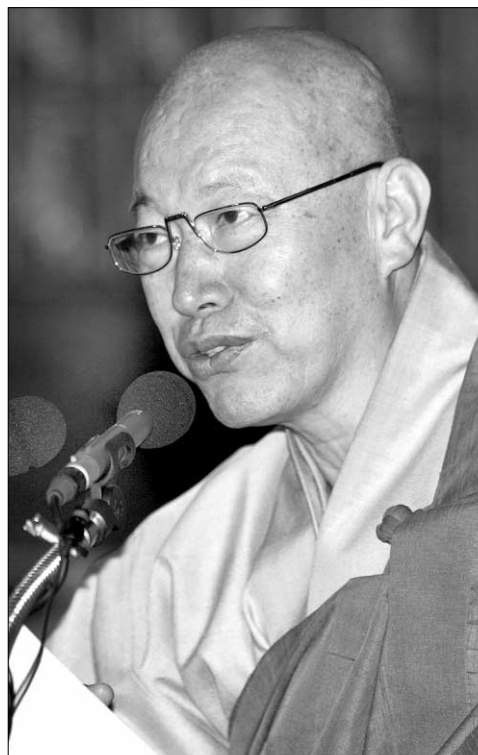
그런데 <화엄경>의 특이한 점은, 마치 의상의 <법성계>에 나오는 초발심시변정각(初發心是正覺)처럼 점수적 단계에 있으면서도 대만에 깨달음이 부처가 될 수 있다는 내용이 나온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화엄경>을 깊이 공부하는 분 중에는 십주 성불문을 내세우는 분도 있습니다. 즉, '처음부터 성불할 수 있다'는 주장인 것입니다.

'십정품'은 보살이 수행을 완성하면 심정을 얻을 수 있다는 뜻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8품 '십정품'에서는 심정에서 심통이 나오는 것으로 설명이 이어지고 있지요. 이어 29품 '십인품(十忍品)'에서는 앞 품의 심통이 어우러지면 다시 열 가지 지혜의 인(因)이 이루어진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30품 '아승지품(阿僧祇品)'의 '아승지'는 범어를 음차한 단어입니다. 이 품은 124개의 대수(大數)를 설해 놓은 품입니다.

흔히 <화엄경>을 교상 관촬할 때 '원교', 즉 '원만한 가르침'이라고 말합니다. 모든 것을 받아들이 수용한다는 뜻이지요. 바닷물이 지상의 모든 강물을 받아들여듯이 제법을 모두 수용해 조화시켰다고도 표현합니다.

이 화엄의 정신이 바로 한국불교의 특징을 이루었습니다. 인도불교는 부파불교, 중국불교는 종파불교라고 말하면 반면 우리나라 불교는 '통불교'라고 말합니다. 서로 모아서 소통하게 만들었다는 뜻이고, 모든 종파의 교의를 하나로 묶었다는 뜻이지요. 이 회법의 근거가 바로 <화엄경>에서 나옵니다.



월정사 화엄산림 네번째 강사인 은혜사 승가대학원장 지안 스님은 "화엄경"은 '보살이 만행화로 깨달음의 길을 꾸미며 살아가라'고 설파하는 경이라고 강조했다.

지 모두를 포괄하고 있는 우리나라 불교의 특징과 상통합니다.

마음에 탐진치 삼독(三毒)이 있으면 사는 것이 힘들어지거나 욕망을 좇고 해탈하자, 이것은 성문연각이 하는 말입니다.

대승에서는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번뇌를 끊고 성불하는 것이 아니다! 번뇌 그대로가 해탈이다! 실천행과 함께 가라, 이것이 바로 <화엄경>의 사상입니다.

한국불교의 우수성을 말할 때도 화엄사상을 갖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한국불교에는 선 수행의 장점도 살아있습니다. 그러나 신라 때의 구산 선원에서 시작된 선종은 중국선에 의지해 모방한 면도 없지 않습니다.

외래 보조국사가 <화엄경>을 읽고 자극받았다는 이야기처럼, 깨달음의 경계를 내적으로 체험했다 하더라도 화엄의 사사무애를 통한 대외적 이타원력이 결핍되면 수행은 좀처럼 완성될 수 없습니다.

화엄사상은 원효·의상 스님에서 시작해 한 때는 우리 불교의 우수성을 일본이나 중국에까지 과시했던 사상입니다. 당대의 석학이었던 현수·법상 스님 뿐 아니라 중국의 화엄 사조인 청량국사도 원효 스님의 교설을 소중히 대했다고 전해져 내려옵니다. 탁월한 법공에 의해 창도되고 계도된 한국의 화엄사상은 통일 신라

'성불은 못했지만 부처의 정신 바로 세워보자'

만물은 본래 평등한 것, 이것이 화엄정신입니다

<화엄경>은 대의를 '통만법명일심(統萬法明一心)' 혹은 '통만법귀일심(統萬法歸一心)'이라 표현해 일체 만법을 통합해 마음으로 돌리는 유심법문으로 요약합니다. 한마음을 밝힌다는 말입니다.

알고 보면 이 세상 모든 것이 '화엄도리'입니다. 마음은 갖가지 오은(五蘊)을 만들어내고 물질적이고 정신적인 모든 것이 마음에서 만들어져 나오지요. 즉, <화엄경>은 마음이 만들어내는 모든 것을 진열해 놓은 대형 종합백화점이라 할 수 있습니다.

또 <화엄경>의 별명을 '잡화경(雜華經)'이라 하는 것처럼 화엄법문 안에는 온갖 잡화사상이 두루 수용돼있는데, 이것은 다른 나라 불교보다 기층민의 무속적인 면에서부터 고도의 선수행에 이르기까지

를 거쳐 고려와 조선을 이어져 내려오면서 한국불교의 기반이 됐습니다. 교학적 측면에서 중국이 원각경 불교, 일본이 법화경 불교라면 우리나라 불교의 가치의식은 바로 화엄 불교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성불은 못했지만 부처의 정신을 바로 세워보자!' 이것이 바로 화엄의 정신입니다. 중생 핑계 대며 나쁜 짓 할라하지 말고, 학 다리가 길면 긴대로, 오리 다리 짧으면 짧은 대로 본래 평등한 것, 그것이 화엄의 정신입니다. 우리나라 불교가 세운 이 화엄의 가치야말로, 어디에 내놔도 손색이 없으며 또 손상 훼손될 수도 없는 정신입니다.

평창 월정사/정리=이은비 기자 · 사진=박재원 기자

'화엄경' 알려면 삼매 이해해야 합니다

마음은 무엇이든 만들어 낸다고 보는 것이죠

로도 연관이 깊으며, 前 월정사 조사이셨던 탄허 스님께에서도 생전에 '화엄대가'라, 70년대 말에 <화엄경> 강의록 직접 이곳에서 열기도 하시고, <화엄경> 번역도 하셨습니다.

그럼 23품 '승도솔천공품(兜率天宮品)'을 살펴볼까요. 이 품은 부처님이 6번째 육계천상계인 도솔천중에 오르시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부처님이 해인삼매에 드신 채로 처음 앉아계셨던 보리수 아래와 수미산정, 아미타궁을 떠나지 않고 그대로 계시면서 도솔천궁으로 오르셨다고 나옵니다.

<화엄경>을 이해하려면 삼매를 이해해야 합니다. 이를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도대체 허구적인

덕을 설한 법문이지요. 심회향법문은 십지법문을 위한 전 단계 순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십지품(十地品)'은 보살에 이르는 10가지 수행 단계를 밝혀놓은 품입니다. 앞의 십회향, 십주, 십행 수행은 관법(灌法)에 의해 수행이 이루어지지만, 이제는 직접 체험하는 본격적인 보살수행에 들어가게 됩니다.

십지, 십주, 십회향, 십행... <화엄경>에는 이렇게 10자가 들어가는 품이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탄허 스님께서는 생전에 통현장자의 <화엄론>을 중시하고 이를 근거로 <화엄경>강설을 많이 하셨는데, 이 통현장자의 <화엄론>을 보면 <화엄경>에 나타나는 10자가 상징하는 바를 밝혀놓은 구절이 있습니다. <

현대결혼연구원
사랑을 추구하는 결혼연구원
안녕하세요?
2006년은 불자님 가정에 부처님의 가피가 가득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원장 이영숙 회장

제21회 불이상 공고
不二會에서는 한국불교 중흥의 선구적 역군이 될 참신한 젊은 일꾼을 육성함을 목적으로 연구·실천 2개 분야에 걸쳐 탁월한 가능성을 보이는 인재들을 발굴, 그들의 보다 앞찬 발전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본 상을 제정 매년 1회 시행합니다.
1. 시상분야
가. 연구분야
① 대학원 석사과정수료 이상의 학력자로서 대학에서 시간강사 이상, 조교수 이하의 직에 있는 자로서,
② 최근 2년 동안 업적 중 불교학(불교를 중심으로 하는 역사·철학·문학·예술·비교사상, 기타) 관계의 탁월한 연구 성과를 올린 40세 전후인 자.
나. 실천분야
① 불교에 입문하여 7년이 경과한 불자 또는 불교단체
② 수행과 포교가 모범이 되는 자로서 연령 제한 없음.
2. 시상규모 : 각 분야별 1명 1000만원
3. 후보자 제출서류
가. 후보자 추천서(본회 소정양식)
나. 자필이력서(사진 첨부)
다. 학력증명서
라. 경력증명서
마. 업적 증명용 연구물 또는 활동 내역서, 성적 증명서
바. 부처님, 受戒 증명서
사. 추천서 3통(총장·대학원장, 기타 기관및단체의 장)
4. 접수마감 : 2006년 6월 5일까지
5. 심사 : 불이상 심사 위원회
6. 수상자 발표 : 불교계 언론매체
7. 접수처 및 문의 : 불이상 심사 위원회
서울 종로구 익선동 55번지 현대드레비앙 148호
전화 02) 762-5624~6 / 팩스 02) 762-5627

Young Buddha Association
창립총회 대법회 공고
능인선원 지광 큰스님을 모시고 청년불자 양성과 국제교류사업을 선도할 Young Buddha Association 창립총회 대법회를 아래와 같이 개최합니다.
아래
장소 서울 강남구 포이동 능인선원 대법당
시간 2006년 4월23일 오전 10시 30분
안전 및 중요식순
* 지광스님 축하법문
* 정관 채택
* 임원 선임
* 사업계획 발표

배관과 보일러가 필요 없는 원적외선 필름난방 시스템
"월 5,000원으로 난방비 걱정 끝"
■ 금호익공의 특징
* 한겨울 난방비가 전기보일러의 30%, 기름보일러 대비 70%이상 절감됩니다.
* 간편하고 빠른 시공으로 당일 시공이 가능합니다.
* 당일 시공하고 당일사용이 가능합니다.
* 두께가 얇고 경량이라서 건물하중에도 영향을 없습니다.
* 보일러실이 필요 없으므로 공간절약이 되고, 관리 유지가 편리합니다.
* 기존 전기보일러 단점을 100% 보완하였습니다.
* 화석연료를 사용하지 않고 전기를 사용하므로 환경친화적인 제품입니다.
* 제품의 수명이 반 영구적입니다.
* 인체에 유해한 전자파보다는 건강에 좋은 원적외선이 다량방출됩니다.
* 원적외선 복사열로 인하여 방한 가득 온기가 탁월합니다.
* 철저한 개별 난방 시스템으로, 필요한 부분만 제어가 가능합니다.
* 축전에 돌림과 걱정이 없습니다.
* 필요할 때 잠깐 사용이 가능합니다.
* 원적외선 필름 난방은 바닥만 따뜻한 일부 전기제품들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난방용 필름" 금호에너텍에서 설치하면 확실히 다릅니다!"
금호 에너텍 KUMHO EnerTech Co. 상담/문의 031)422-0467